

'내가 본다' 마저 잊어야죠

산문박의 筆

대금정악 명인 김응서 씨

35년간 오직 대금부는 일만...
수천번 연습 그리고 좌절
소리가 익고 썩어 마침내
대나무처럼 땅과 하늘을 잇는다

"나는 대금을 불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악보를 잘 보고 음정을 잘 맞추려는 생각하기에 바빠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대금을 불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노는 내 모습을 본다."

기가 한참 후에 이해가 되더군요. 나도 어느 순간부터 대금을 불며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다니 말입니다. 남들은 믿지 않아요. 그럴 체할지 않고는 단연히 못말죠.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연주 회때도 무대까지 간 것 그리고 청중들에게 인사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내가 준비실로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연주를 잘 마치고 나온 것이라고 옆사람에게 물어 보기도 합니



김응서 씨

악기·선율 집착 벗어나 무아경 찾는 소리여행 음악은 정신의 완성... '장단고저' 다스리는 정진

30여년전 스승과 나는 짧은 대화를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접감한다는 대금정악 명인 김응서(50, 중요무형문화재2호 대금정악기능보유자)씨. 여느 외길인생이 그렇듯 김씨도 대금을 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35년간 대금 부는 일 밖에 하지 않았다. 그것도 정악대금(正樂大琴)만을 불었다. 초심자며 이를 높은 명인 한분이 만들어 준 산조 대금을 꺾어버려 정악만을 자신의 길로 삼았던 것이고 그 길을 울곧게 걸어왔다.
"악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과 만나 자연에서 완성된다(樂也者出於天而遇於人 成於自然)." (악학궤범) 서문의 시작이다. 인간의 입김과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대나무 악기가 내는 소리.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이지 결코 인간의 것도 대나무의 것도 아니어야 할까? 김씨는 길을 열어주는 힘이었던. 그는 대금을 부는 일이 도를 닦는 일과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때 '선생님이 벌써 노망이 드셨나' 라는 의미함으로 흘려 버렸던 애

다. 물론 잘 마치고 왔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기억이 없거든요. 이 나이에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닐테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도(道)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경지가 있음을 먼저 하시 하시하시 나는 이해 못했던 것이고 지금은 내가 더러 그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무아(無我) 또는 몰아(沒我)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나는 산과 강을 보고 거기에 가서 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풍경은 물론이고 내가 연주한다는 생각과 기억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대금부는 일을 두고 도의 경지를 얘기하면 전방지척지만(스승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나를 잃어 버리는 순간을 체험하는 것은 대금만을 불어 온 지난 시간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부는 일 자체가 자신과의 싸움이고 악기와와의 싸움이고 하늘소리를 발현하려는 의지와와의 싸움으로 이 일도 분명히 수행이라 믿습니다."
김씨는 김성진선생을 만나는 순간부터 대금정악의 길을 운명처럼 받아 들

었다. 그러니까 61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를 입학하면서 부터다. 6년과정 가운데 3학년부턴 정공악기를 배우는데 그때 김성진선생의 권유로 대금정악을 택했고 그 선택을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스승의 길을 떠날 때도 없다. 스승의 세심한 가르침을 받으며 오직 연습에 모든 시간을 바쳤다. '이왕직악부 이후 연습 많이 하기로는 김응서가 제일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씨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악에 맞춰 다스리는 데서 바른 음악의 시작을 삼고 있다. 음악은 정신의 완성이니. 선조들이 '예악(禮樂)'이란 말을 즐겨 쓴 것도 음악은 감각적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천년 전 정진 세계의 넉넉함으로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김씨의 '활인(活人)의 음악'에 대한 고집은 국보급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집주(節奏)는 그의 생활이다. 그는 음악과 생활을 하나로 연주한다. 고요속의 움직임으로 장단고저(長短高低)를 다스리는 것이다. 처음

에는 악기를 이기기에 힘들고 다음에는 선율을 이기기에 힘들다. 그 뜻을 이겨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참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것이 대금의 길이다. 그 길의 끝에서 인간이 하늘의 소리를 내어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을 때 참다운 음악을 이룬다. 수천번의 연습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용기로 익고 썩어 마침내 끝은 대나무처럼 땅과 하늘을 잇는 소리를 얻은 사람이 김응서 씨다. 그러나 그는 득음(得音)을 자랑하지 않는다. 스스로 득음을 희롱하는 자리를 사양하는 것은 득음이란 땅상 마저 깨버리기 위함이다.
지난 2월 스승의 타계이후 삼심한 그에게 최근 정부가 인간문화재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는 스승의 대금을 물려 받은 것처럼 우리의 바른 음악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의 황종(黃鐘) 국악의 12물러중 기본 음으로 삼는 음)은 우리 음악의 오늘 이고 내일이기 때문이다.

글=임연태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독신생활을 해야 깨달는지요

문 천지는 음양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독신을 게을로 삼고 있는데 독신생활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지요?

(인형순·경기 시흥시 정황동)

답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 길에 들어 섰때는 먹는 일까지, 자기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도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무슨 혼자 산다 물이 산다. 여자다 남자다 하는 문제가 인중에 없게 되지요.

공부길에 사무칠 때는 그런 생각 할 사이도 없습니다. 실은 그 시기가 지나면 그때가서는 '아하 이런걸... 이런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고 깔깔 웃게 되지요. 예를 들어 통달했다고 하면 그때는 뭐 여자가 남자가가 어디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무엇이든 좋지요. 물이서 도반이 되어도 좋는데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보고 듣는 대로 집집만보고 어려움겨러움 생각할테니

억 세계에 여러 색신을 나타내서 보살·성문·연각들을 교화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중생이 보는 바에 따라 부처님의 나투심이 각각 다르므로 천백역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께서는 몸으로 다루는 것을 상상하시는 모양인데 부처를 부처의 형상으로 보면 이미 부처가 아닙니다. <금강경>에 여래를 색신으로 보느냐? 32상 80종호로 보느냐?는 문답이 나오지만 이를이나 모양의 부처가 부처가 아닙니다. 설사 만명이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해도 한 부처요 부처가 천백역으로 나타났다고도 한 부처입니다.
부처님께서 천백역 화신으로 나타내신 것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 일체 중생으로 화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돼지를 건지려하면 돼지 속으로 들어가 돼지가 되어야 하고 소를 건지려하면 소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부처될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이미 일체 중생으로 나투고 계신 것이지요. 부처를 개별적인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나투는 것을 육신으로 나뉘고 고정되게 생각하시는 것은 가르침의 핵심을 잘못 아는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미치지 못하

지 상 상 담

길 잃은 나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6

나 나 편하다고 아무렇게나 추천할 수 없는 도리가 있지요.
처음엔 나를 알기위해서 공부했는데 그 다음엔 너와 내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엔 너와 내가 같이 아니게 나투기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조화를 알고자 공부하는 것이지요. 또 누구나 본래 갖춰져 있고 알 권리가 있기에 모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만약 사람들이 다 독신으로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은것 같은데 우주만물의 음양조화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조화의 근본이치를 아는게 급선무라는 말입니다.

천백역화신이 나타난다는 뜻은

문 ① 천백역 화신으로 나타난다는 표현의 참의미는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곳곳에 화신의 몸을 나타내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마음의 힘으로 교화함을 말씀하시는지요?
② 수행을 많이한 사람도 퇴보하여 악도에 떨어지는지요? 일단 악도에 떨어지면 그 수행력은 다 소멸되는지요?
③ 애에게 가슴 썰레이는 아득한 그리움의 정체는 무엇인지요?

(익명의 불자)

답 ①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중생모습으로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천백

는 풀이 없고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은 빛보다 빨라서 저 우주가 한 동네쯤인데 마음으로야 무엇인들 되지 못하겠습니까? 마음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맛을 보기 바랍니다.
② 수행에는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어떤 수행을 말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바르게 수행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형식이나 겉모습으로 제법 수행을 믿어지는 경우를 말하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행주와와 한 순간도 빼놓지 않고 다 참선수행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늘 자기를 바로 비취고 자기의 근본 성품자리를 믿어서 거기에 놓고 관하는 삶은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 차원 한 차원 진화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자유인의 경지에 이르러는 것이 아닌가요?
자기를 돌아보며 목욕하 대장부의 발걸음을 내딛는 수행인에게 무엇인들 거칠 것이 있었습니까? 불법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식으로 자꾸 사랑분별하려하면 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수행인이라면 다행히대로, 무엇이 다가오는 줄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란 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자동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았던 것이 상황에 따라 술술 풀려나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리움이 어렵다 하시는데 그게 다 업식의 놀음이나 나온 자리에 되놓고 가도록 하세요.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금강경독송회 위음

1부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마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시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값 7,500원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뒷덜이 검고 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들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듯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갑상선이상고통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